

가가 마키에(加賀蒔絵)

가가 마키에는 에도 시대(1603~1867)에 가가번(현재의 이시카와현과 도야마현)에서 탄생한 장식 칠기 중 하나입니다. 옷으로 그린 밑그림이 마르기 전에 금가루 등의 금속가루를 뿌려 무늬를 완성하는 ‘마키에’ 기법을 사용한 화려한 장식이 특징이며, 이것이 발전한 것이 현재의 가나자와 칠기입니다.

에도 시대에 가가번은 막대한 재력을 자랑하던 마에다 가문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번주였던 마에다 도시쓰네(1593~1658)는 두 명의 마키에 장인, 시미즈 구헤이(?~1688)와 제 1 대 이가라시 도호(?~1678)를 가나자와로 불러 칠기 공방을 설립하게 했습니다. 두 사람은 뛰어난 가가 마키에 작품을 제작했으며, 그 기술을 후계자들에게 전수했습니다. 이를 통해 가나자와는 칠기의 주요 생산지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마키에에는 문양을 평평하게 완성하는 기법부터 문양을 도드라지게 만드는 기법까지 다양한 기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법을 조합하여 입체적인 구도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가 마키에의 특징입니다. 또, 나전이나 부순 달걀껍데기를 함께 사용하는 디자인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가가 마키에에는 번주인 마에다 가문의 취향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자연을 모티프로 한 작품이 일반적이며, 특히 유명한 와카(일본 전통 시가)나 민화에서 유래하여 길조로 여겨지는 길상문양이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가가 마키에로 장식된 물품은 마구나 갑옷, 칼집 등의 무구부터 독서대나 차도와 같은 화려한 일상용품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합니다.